

기다렸다 핸드볼리그...광주도시공사·SK '2강'

새해 1월 5일 개막 앞두고 미디어데이서 8개 구단 감독들이 꼽아 올해 준우승 광주도시공사 강경민·서아루 등 건재 "내년엔 우승"

2023년 1월 5일 개막하는 2022-2023시즌 SK핸드볼코리아리그 여자부 8개 구단 감독들은 광주도시공사와 SK 슈가글라이더즈가 '2강'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9일 열린 개막 미디어데이 행사에 참석한 8개 구단 감독들은 '자신의 팀을 포함해 우승 후보를 꼽아달라'는 질문에 광주도시공사 6표, SK 5표 순으로 답했다.

광주도시공사는 기존 선수들을 중심으로 한 조직력을 강화, 전력 누수없이 라인업을 유지하고 있다. SK는 전력을 보강했다는 감점이 있다.

김경진 감독이 새로 지휘봉을 잡은 SK는 삼해인(35)과 송지은(26)을 영입해 전력을 키웠다.

김경진 감독은 "송지은이 공격, 삼해인은 수비에 큰 역할을 기대한다"며 "목표는 우승으로 잡았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지난 시즌 준우승팀 광주도시공사는 오세일 감독의 지도 아래 강경민, 서아루, 김금순 등 기존 멤버들의 호흡이 뛰어나다. 김금순은 잠시 팀을 떠났다가 이번 시즌을 앞두고 복귀했다. 김지현, 정현희, 송혜수를 비롯해 원선필(피봇)과 베테랑 골키퍼 손민지, 박조은이 베테랑 수비라인도 견제한다. 이들이 2020-2021시즌 정규리그 4위, 통합 3위

를 달성했고, 2021-2022시즌에는 정규리그 2위, 챔피언결정전 준우승을 일궈낸 주역이다.

오세일 감독은 "취약 포지션이던 라이트 윙에 신인 김수민이 들어왔고, 김금순의 복귀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공수에서 전력을 보강한 SK가 가장 낮지 않을까"라고 경계심을 내비쳤다.

두 팀에 이어서는 지난 시즌 우승팀 삼척시청과 2년 만에 패권 탈환을 노리는 부산시청공단이 강세를 보일 전망이다.

시즌을 앞두고 유일하게 일본에서 외국 전지훈련을 진행한 삼척시청 이계정 감독은 "일본에서 체력 등 여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왔다"며 "감독님들이 뽑은 우승 후보에 우리 팀이 거론되지 않았지만 긴장하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베테랑 김은아의 합류도 삼척시청에는 큰 힘이 될 전망이다.

일본 리그에서 뛰던 이미경이 1년 만에 복귀하고 가비나, 알리나 등 외국인 선수 2명을 기용하는 부산시청공단 강재원 감독은 "장기 레이스를 대비해 선수를 폭넓게 기용할 수 있도록 체력적인 면을 강조했다"며 "새로 들어온 알리나는 키 185cm의 레프트백인데 아직 어린 선수지만 팀에 적응하면 전력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세일 광주도시공사 감독(왼쪽에서 세번째)과 서아루(네번째)가 2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2-2023 SK핸드볼 코리아리그 여자부 미디어데이에서 각 구단 감독 및 선수들과 파이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삼척시청에서 뛰던 이호진을 영입한 인천시청과 지난 시즌 최하위였지만 김선화, 김희진, 강은지 등을 영입한 대구시청, 골키퍼 우하림을 보강한 서울시청, 신인 이연송을 지명한 경남개발공사 등도 풀

레이오프 진출 마지노선인 4위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광주도시공사는 오는 1월6일 경기 광명실내체육관에서 경기장에서 경남개발공사를 상대로

시즌 개막전을 치른다. 29일과 2월4일에는 광주 빙고체육관에서 부산시청공단과 경남개발공사를 상대로 두 차례 홈경기를 갖는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연합뉴스



페퍼스 니아 리드가 28일 광주 서구 페퍼스타디움에서 열린 프로배구 도드람 2022-2023 V리그 IBK 기업은행전에서 스파이크 하고 있다. (KOVO제공)

리드 30점 분전에도...페퍼스 17연패 나락

V리그 기업은행에 1-3 패

광주 AI페퍼스가 시즌 17연패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페퍼스는 28일 광주 서구 페퍼스타디움에서 열린 프로배구 도드람 2022-2023 V리그 홈 경기에서 IBK기업은행에 세트스코어 1-3(25-27, 25-20, 12-25, 24-26)으로 무릎을 꿇었다.

페퍼스는 연패를 17로 늘려 최다 기록 경신을 목전에 뒀다. 여자부 최다 연패는 2012-2013시즌 KGC인삼공사의 20연패다.

니아 리드는 공격 점유율 40.46%를 유지하며 30점을 뽑아내는 등 맹활약했다. 리드는 V리그 데뷔 후 가장 많은 점수를 따냈다.

페퍼스는 리시브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 영입한 오지영을 투입했으나 고질적인 수비 불안을 다스리지 못했다. 오지영의 리시브 효율은 29.35%에 그쳐 이한비(44.12%) 보다 뒤졌다.

팀의 약점으로 지적된 위기관리 능력에서도 한계를 드러냈다. 1, 2, 4 세트에 승부의 고비인 20점을 넘어서거나 뒷심에서 밀려 2세트만을 가져왔다.

페퍼스는 1세트 25-25 듀스 상황을 만들며 승

부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갔다. 하지만, 기업은행 김수지에게 속공을 허용해 25-26으로 승기를 내준데 이어 산타나에게 오픈 공격을 허용해 다잡은 세트를 놓쳤다. 리드가 8점을 뽑아내며 공격을 이끌었으나 나머지 선수들의 부진이 아쉬웠다. 오지영은 1세트에서만 5개 디그를 기록 수비진에 힘을 실었다.

2세트는 페퍼스의 완승이었다. 리드가 8점으로 공격을 이끌었고 최가은, 이한비가 각각 3점, 4점을 뽑아내며 뒤를 받쳤다. 페퍼스는 공격 성공률을 46.43%까지 끌어올리며 세트를 따냈다.

3세트에서는 고질적인 리시브 불안이 또 불거졌다. 기업은행은 리시브가 불안한 박경현에게 목격타를 집어넣어 2점을 빼앗는 등 서브에서 페퍼스를 압도했다. 페퍼스는 리시브 효율이 30.43%로 뚝떨어지면서 고전했다. 불안한 서브 리시브 탓에 제대로 된 공격을 하지 못해 결국 12점만을 기록했다.

페퍼스는 4세트에서 공격력이 살아나면서 24-24까지 팽팽한 승부를 펼쳤으나 24-25 상황에서 리드의 백어택이 아웃되면서 세트를 잃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노장의 힘...34세 이승훈 종합우승

빙속 전국선수권...“2026년 밀라노 올림픽 출전이 목표”

30대 중반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한국 스피드스케이팅의 '간판선수'인 이승훈(34·IHQ)이 4년 뒤 동계 올림픽에도 출전하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이승훈은 29일 IHQ를 통해 "앞으로 목표는 2026 밀라노-코르티나페초 올림픽 출전이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서울 태릉국제스케이팅장에서 막을 내린 제77회 전국남녀 종합 스피드스케이팅 선수권대회에서 남자부 종합 우승을 차지했다.

남자 5000m와 10000m에서 1위에 올랐고, 남자 1500m와 500m에선 각각 3위, 5위를 기록해 각 종목 성적을 합산한 종합 순위에서 정재원(21), 양호준(17·이상 의정부시청) 등 후배들을 제쳤다.

최강자의 입지를 재확인한 이승훈은 "경기를 준비하는 시간이 참 즐거웠다. 이번 대회에서도 좋은 기록과 성적이 나와 행복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다.

이어 "나이 차이가 크게 나는 후배들과 경쟁을 하며 배운 점도 많았다. 후배들의 적극적인 도전과 기록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 스피드스케이팅의 발전을 기대할 만하다"고 덧붙였다.

IHQ 빙상팀을 지휘하는 이규혁 감독은 "이승훈은 전성기 실력을 기대할 만한 만큼 경기력이 향상됐다. 스무 살 정도 어린 후배들을 꺾고 1위를 차지한 것은 대단한 일"이라며 흡족해했다.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남자 10000m 금메달, 5000m 은메달을 시작으로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매스타트 동메달까지 네 번의 올림픽에서 6개의 메달을 획득한 이승훈은 올 시즌에도 꾸준한 기량을 유지하고 있다.

이달 캐나다 퀘벡에서 열린 2022-2023 국제빙상경기연맹(ISU) 4대륙선수권대회에선 남자 매스타트와 5000m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연합뉴스

신진서 3년 연속 바둑 MVP

다승·승률·연승왕도 석권

여자기사상 최정·시니어상 유창혁

한국 바둑계의 '절대 1강' 신진서(22) 9단이 3년 연속 최고의 기사 영예를 누렸다.

신진서는 29일 서울 더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열린 2022 바둑대상에서 최우수기사(MVP)로 선정됐다.

바둑 기자단 투표에서 53.0%, 네티즌 투표에서 55.3%의 표를 얻었다.

2018년과 2020~2021년에 이은 개인 통산 네 번째 수상이다. 남자 부문 다승상(79승 14패), 승률상(84.95%), 연승상(18연승)도 휩쓸었다.

36개월 연속 랭킹 1위를 지키고 있는 신진서는 올해 세계대회에서 LG배, 삼성화재배, 국수산맥배 우승을 차지했고, 단체전인 농심신라연맹배에서는 4연승을 거두며 한국 우승을 이끌었다.

올해 누적 상금 14억4195만원으로 2014년 이세돌 9단의 14억130만원 기록을 제치고 역대 최다 상금왕에 오르기도 했다.

여자기사상은 여자 프로기사 최초로 메이저 세계대전 결승에 진출한 최정 9단에게 돌아갔다.

최정은 국내에서도 여자최고기사 결정전, 하림배 여자국수전, 해성 여자기성전 트로피를 손에 넣는 활약을 펼쳤다.

최정은 네티즌이 뽑은 인기상과 함께 승률상(74.29%), 연승상(20연승)도 석권했다.

시니어기사상은 1004점 신인 국제시니어바둑대회 2연패와 시니어바둑리그 다승왕 수상을 일군 유창혁 9단이 가져갔다.

입단 13년 만에 첫 우승의 기쁨을 누린 이원영 9단은 기량발전상을 받았다.

한우진·김은지 5단은 최우수신인상 남녀 부문에서 선정됐다.

올해 연간 최다승 기록을 갈아치운 김은지는 다승상(94승)도 차지했다.

공로상은 설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해성그룹이 함께 받았고, 최우수 아마바둑선수상에선 김정선과 이부리가 각각 호명됐다.

/연합뉴스

시프린, 알파인 스키 월드컵 통산 79승

여자 역대 최다승 '-3'

마케라라 시프린(27·미국)이 국제스키연맹(FIS) 알파인 월드컵에서 개인 통산 79번째 우승을 거뒀다.

시프린은 28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제머링에서 열린 2022-2023 FIS 알파인 월드컵 여자 대회전에서 1, 2차 시기 합계 2분 03초 51의 기록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라라 구트-베라미(스위스·2분 03초 61)를 0.1초 차로 제치고 전날 대회전 경기에 이어 이를 연속 1위에 오른 시프린은 월드컵 개인 통산 승수를 79승으로 늘렸다.

이로써 시프린은 개인 통산 80승에 1승만을 남

겨웠고, 3승을 추가하면 은퇴한 린지 본(미국)이 보유한 여자부 월드컵 통산 최다승 기록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다.

남녀를 통틀어서는 남자부 잉에마르 스텐마크(스웨덴·은퇴)의 86승이 역대 최다승 기록이다.

시프린은 역대 3위이자 현역 선수 중 최다승을 올리고 있다.

이번 시즌 회전과 대회전에서 2승씩, 슈퍼대회전에서 1승을 따낸 시프린은 알파인 스키 월드컵 여자부 종합 1위(775점)도 굳게 지켰다.

이번 우승으로 시프린은 2위 소피아 고자(이탈리아·470점)와의 격차를 305점으로 벌렸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아바타: 물의 길,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2관	아바타: 물의 길
3관	아바타: 물의 길
4관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5관	젠틀맨
6관	아바타: 물의 길, 올빼미
9관	영웅
7관 씨네커를	영웅, 신비아파트 극장판 차원도깨비와 7개의 세계,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8관 씨네커를	젠틀맨, 극장판 보로로와 친구들: 바이러스를 없애줘!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2023 신년음악회

GWANGJU SYMPHONY ORCHESTRA

광주시립교향악단 제37회 정기연주회
2023 신년음악회
일시 : 2023-01-17(화) 19:30
장소 : 전남대학교 민주마루
문의 : 062-524-5086